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진정한 아버지 그걸 못 믿으니 말가지 못해

한도 끝도 없이 참고 견디는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은 어떤 점이 다르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쉽게 되는 것이지, 마귀의 성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의 차이는 변덕쟁이요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성품이요, 한도 끝도 없이 참고 견디는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지 끝까지 참지 못한다면, 언제는 믿었다가 언제는 안 믿고, 언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언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하는 그런 변덕쟁이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한도 끝도 없는 인내력이 있는고로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 오늘날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은 나를 이기는 길

그런고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신앙 간증담 말씀을 할 때에 30일 동안 금식기도 하기 전에 열흘씩 금식기도 하는 것을 딱 먹듯 했다고 했는데 열흘씩 금식기도 하는 것은 거의 한 평생 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아주 어려서 위장도 안 좋고 횡배도 자주 앓던 사람이었는데, 성장하면서 금식기도를 자주하게 되니까 위장병도 낫고 횡배도 깨끗하게 나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식기도를 해 본 사람은 알지만 한 3일만 금식을 하게 되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비가 오는 것입니다. 제일 고비가 3일인데 이 고비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고로 그런 금식 기도를 딱 먹듯 했다면 얼마나 금욕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다는 것을 그거 하나를 봐서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 하기 싫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또한 졸리면 잠을 안 자고, 무엇이 먹고 싶으면 먹지 않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반대 생활을 하게 되니까 바로 마귀의 영이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점점 더 약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못 이겨가지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나한테 지는 사람은 나라는 마귀가 언젠가는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생활 해야

그런고로 나를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버릇을 가져야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게 되고, 마귀한테 유혹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제 멋대로 하는 버릇이 있으면 언젠가 마귀가 이제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이제 생활하는 버릇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를 생각하면 뒤돌아보는 음란죄요, 가족을 생각하지 말아라,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을 생각하는 관심의 음란죄가 된다." 하시므로 결국 과거를 생각지 아니하고, 가족을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을 생각하려야 생각



구세주 조희성님

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모든 마음과 생명과 몸과 모든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겨라."고 하시므로 내 마음과 몸과 내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기려니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긴고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만 행동을 해야지 이제 내 멋대로 생각 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만 하게 되어야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다가 되는고로 그런고로 내 마음과 내 몸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고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의 영인 완성의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의 영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

고 여러분들이 완성의 이긴자 구세주가 되는고로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겨야만 바로 신앙 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주체영이 돼 가지고 완성의 이긴자 하나님이 되는고로 영원무궁토록 사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고 나를 이긴 하나님으로 영생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려면 바로 내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이 하나님께 뭐든지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제단 나온 후부터는 언제든지 지는 연습을 해야지 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승리제단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나오면 그건 마귀한테 졌다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영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

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상대방이 미워할 때에 그 상대방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볼 때는 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미워하고 제 아무리 때리고 욕을 해도, 그래도 그 미워하는 상대자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끝까지 좋아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 마귀는 진 것이요, 하나님은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귀 편에서 볼 때는 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장 안에서만 살아야

이 세상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소유였던고로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 상태로 돌아가야만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친구는 바로 마귀가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친구요, 인간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인고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이라든지 음식 물에다가 주님의 얼굴을 새기고 먹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므로 여러분의 병마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고 하나님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제단 식구들은 다 하나님의 몸인고로 그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고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여야 그래야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지 이제 제 멋대로 몰래 몰래 이 사람한테 가서

침 맞고, 저 사람한테 가서 침 맞고 약신 받은 사람한테 가서 치료 받아 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 자체가 하나님의 몸인고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야, 하나님의 주장 안에서 살아야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조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사는 이러한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고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일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의 과일인데 지조가 뚜렷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명과일을 주시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이제 승리제단에서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그래야만 생명과일을 먹고, 그래야만 영원무궁토록 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91년 12월 20일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축 아버지날



한 사람이 두세 사람 몫을 다하며 웅장하고 힘찬 연주를 선사한 무궁화관현악단



변숙자님이 이영자 총재께 꽃다발을 드리고 있다



화려한 장구춤씨를 보여준 라준경 승사



부드럽고 간결한 멘트의 사회자 이승우 승사



진혜제단은 단합된 힘과 부드러움을 보여주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부산제단식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찬송하자 성도들 눈시울이 붉어졌다



천상의 화음을 자랑하는 무궁화합창단